

제4호

춘천

聖市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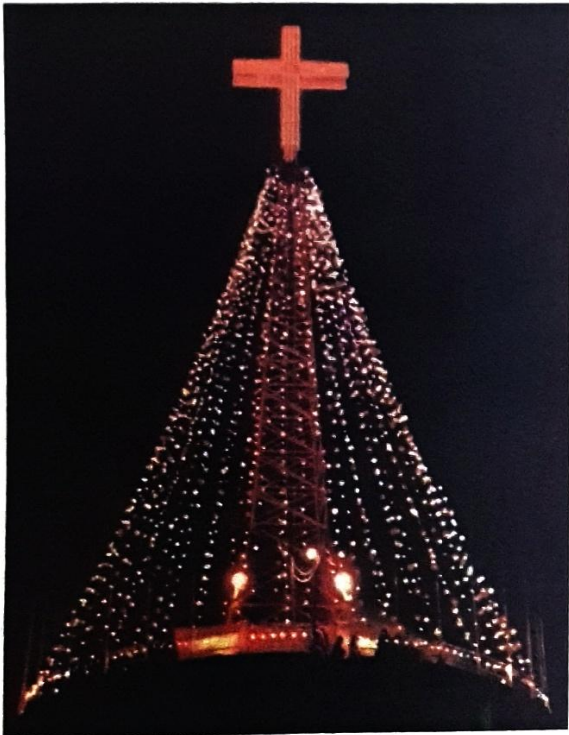
성탄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제 낳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제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
때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
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사야 9월 6월)

발행·인쇄인:조남진 편집인:조충현 (200-091)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0361)256-1260-1 FAX(0361)257-1260

평화의 불 밝힌 삼천봉 승리 십자탑



▲ 98년 11월 20일 오후 5시 중부전선 최전방 백골부대에서 장병들과 춘천지역 교회성도들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그리스도의 성탄을 알리는 54.5m 높이의 승리의 십자탑 점등 예배를 드린다.

98년 11월20일 오후 5시 중부전선 최전방 백골부대 OP 삼천봉 승리십자탑이 점등되었으며 남과 북을 두루 비추어 평화의 왕 아기예수의 나신 성탄을 반짝 반짝 전하게 되었다.

오늘 점등한 54.4m 높이의 십자탑은 내년 1월8일까지 밝게 빛날 것이며 평화의 점등과 타종은 평화통일과 승리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눈을 밝히고 고막을 울리며 닫혀진 마음을 열게하는 순간이었고 참으로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 행사는 15사단 군중참모부가 주관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하였다.

춘천 기독교 연합회장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는 회원 교회들이 준비한 1750개(1트럭)의 정성어린 선물로 국군장병들을 위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다.

점등식은 1부예배 2부 점등 및 타종으로 진행되었으며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가 "크리스마스의 별"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영일 장로(석사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정보처근무 여군들(박경미 중사, 이지현 하사)의 성탄메시지 낭독 특별기도로 "평



화통일을 위하여" 한군 목사(평화감리교회) "승리부대를 위하여" 김용재 목사(38연대진중교회) 그리고 성광장로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으며, 대표자(15명)들의 점등식과 15사단의 승리를 위한 15번 타종이 있었다.

많은 장병들과 서울, 춘천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대한 점등식이 되었으며 춘천교계 대표와 성도들은 회장 김광국 목사, 부회장 황영찬 목사, 총무 한 군 목사(5개 교회에서 80여명이 참석하여 십자탑 성탄 트리 점등식을 빛나게 하였다.

기독교공직자 선교연합회 창립

행정·입법·사법의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각지방 자치단체의 기독교인들이 직장복음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자 전국 10만 기독교공직자를 대상으로 11월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종합 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기독교공직자 선교연합회 창립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 선출에 이어 연합회칙을 통과하였으며 "기독교공직자 모두는 공직 사회를 복음화하고 기독교화를 창조하는 평신도 직장선교사가 된다"는 기독교 공직자 선교 강령을 채택하였다.

총회에는 기독교인과 내외인사, 각 지방 대표 등 6백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도청직장선교회장(박무일 장로) 김봉옥부회장(지적과장) 춘천기독교직장 선교 연합회장(김영명 안수집사)등 몇 분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제 기독교공직자 선교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모든 공직기관의 선교회 조직 및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청 선교회는 91년 각 시군 신우회조직을 파악한 바 있으며, 당시 신우회가 조직된 시군과 연합하여 춘천시 삼천동 어린이 회관에서 제1회



기독교공직자 선교대회를 가졌으나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 김재철(행정자치부 의정국장) 부회장 구대준(청와대 기술심의관) 김충의(법제처 총무과장) 이종명(국회사무처)

양인순(보건복지부) 박길행(충남도청)씨이며 이날 참석인사 중 축사를 하신 분은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진 국회의원, 이명훈 대법관 등이었다.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감사생활

(시편 138편 1-8)



김원연 목사

우두 감리교회 담임

일기예보를 보니 올해는 겨울이 춥고 길어진답니다. 게다가 IMF한파가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경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는 말이니 믿지 말고 우리는 더 더욱 강력하게 절약을 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햇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추도록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늘 아끼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긴 터널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

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감사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릴 때 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의미를 함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었으니가 가서 찬송부리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아 이제 오늘도 다 끝났다' 이렇게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의미를 늘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면 그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또 하나님을 섬겼고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을 '호모그라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인간'입니다.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진정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감

사를 알고 감사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왜? 입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어떠한 고마움, 잘 해주었던 일등 크고 작은 은혜에 대한 것을 마음에 심고 살기보다는 금방 잊어버리고 오히려 짝다 짝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상했거나 작은 손해를 입었던 일, 체면을 깎이게 하고 권위를 조금 손상시킨 일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심지어는 이러한 말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보면 참 별개 아닙니다.

그 반면에 아주 큰 은혜는 고맙다고 하고는 항상 금방 잊어버리고 아주 작은 해를 본 것은 마음에 크게 심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놈의 똥수, 내가 언제 그 원수를 갚을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이든지 사람 앞이든지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호모그라티아'입니다.

· 감사하는 시인을 본받자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편 기자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무엇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또 사랑을 베푸시는가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복 사람과 이남 사람이 다른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복 사람들에게는 저렇듯 어려움을 주실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하나님께 버림 받은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최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로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생활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생활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세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선화 기자)

신앙의 기초교육 (눅6:46~49)



허창 목사

반석 침례교회 담임

○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인간은 얼마큼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질문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큼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상은 굉장히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학교가 생기고 대학교, 그것도 모자라 대학원, 박사과정... 그런 수많은 배움의 집들과 기관들이 이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대학교가 생기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는지 몰라도 이전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사나움이 적은 시대가 되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일만큼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베스트셀러인 로버트 펠덤이 쓴 책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나하면 인생의 기초 교육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 나눠 가져라"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이사회에서 어른들은 잘 나누어 먹고 있느냐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더 취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것을 더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유치원 다닐 때는 분명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너는 나누어 가져야 한다" 다른 친구 때리면 못돼요. 절대로 때리면 안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안 때리니까,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주먹도 아닌 원자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요. 내것이 내것이고 내것도 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면 유치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유치원 교육만 제대로 실천하면 이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하며 오래 할 수록 나타나야 할 삶의 아름다움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써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은 마지막 우리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되자.

내가 10년을 믿은 만큼 주님을 더 닮아있고, 내가 20년을 믿은 만큼 정말 주님의 기록하심 그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신 겸손,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있는 사람이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 '천국이 저의 것이요' 라고 여덟가지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말합니다.

수년전, 감리교 잡지에 "버지니아의 놀라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정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의 가정이었었는데 그는 한 농토를 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디' 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처음에 딸을 낳았고 계속 낳기 시작해서 딸 여섯을 낳고 일곱번째로 아들인 것을 낳았으며 총 딸 열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존영은 배우지 못했지만 식사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집에 먹을 입이 많으니 농사를 돌보아 주십시오" 14명의 아이가 한겨울에 혹여에 걸려 앓아누워 있을때도 있었고

집에 불이나 온 가족이 오늘도들 떨면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과 주님을 섬기는 삶은 교회에서 으밌었고 봉사에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14명의 자녀는 무식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무사히 성장했습니다. 한 명은 경제학 박사, 한 명은 간호사, 한 명은 도서관 전문직, 다섯명은 학교교사, 네명은 건축업자, 한 명은 음악가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으며 모두가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자랐습니다.

○ 우리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모에게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으때 존영은 자기 집에 벽을 가리켰어요. 그 벽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집의 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한 가정의 승리 이야기를 생각하며9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져 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내가 좋은 가지로서 온전한 삶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설레임으로 주의 말씀을 듣던 그 은혜로운 시간들이 이제 타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기초교육을 다시 되새겨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흐트러진 나의 자세를 바로 잡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다시 견고히 주님앞에 설 수 있을때 우리는 우리주변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춘천성서화목요기도모임 설교)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정상문 목사

춘천동원감리교회 담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심장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뇨, 정신질환 등을 묻습니다.

후배 중에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이 다 맹인이신데 이목사님의 5남매 중 4남매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이 목사님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결혼 후에 아기가 맹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물학적 유전 요인이나 기질적인 요인은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계에 영적인 요인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리라.”

나와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은 조상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지 알고 차단하여 믿는 이후로는 데라의 가계가 아닌 아브라함의 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가계에 흐르는 기질은?

요즘에야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습니다. 마는 지난 80년대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가서 한국인으로 미국대학의 교수가 된 신 분들이 약 6,3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거의가 목사, 장로,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가계에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기질적인 영적인 맥이 흐르고 있습니까? 모 신학대학학장 목사님이 무당이 굿하는 곳에 가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하면서 무당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절

을 하고 굿을 하였다하여 크게 문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분의 어머니가 보살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는데도 그분의 가계에 흐르는 맥을 차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을 위하여 잘 살자

여러분 자손들을 위하여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상 덕을 볼 수도 있고 조상의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고 자손 3, 4대까지 저주자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께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출20:5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20:6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풀리라.”

미국의 한 가문을 형성한 캐나다의 집안이 양조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출세시켜 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현재 1사람 빼놓고 모두 비명횡사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울부짖기를 “내가 술을 만들어 많은 사람과 가정을 파괴하시는구나.”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십일조, 교회생활 다 잘하는데도 안되고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진단하고 나의 집안 족가계에 내려오고 있는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슬을 파괴하여야 합니다.

이미 말씀 드린대로 유전적인, 기질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이 무당이 되는 것은 유전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작업들은 기질적인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부, 어촌에서 어부, 광산에서 광부로 되는 것은 환경적 요소입니다. 부모가 알코올중독이면 자녀도 알코올중독으로 가는 길이 80%입니다. 어떤 집안을 보면 심장이나 특별히 신체의 어떤 일정한 부분들이 나쁘게 내려오는 집안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기질적인, 영적인 것을 모두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작은 거인 (삼상17:41~49)



김지한 목사

신북장로교회 담임

410일 후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의 출현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이요, 지도력의 부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국가라는 이데올로기가 붕괴되면서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국가 몫을 담당하여 분쟁이 생기면 언제나 앞장서서 조정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한 여직권과 성적인 관계로 위신이 추락하고 지도력에 금이 가서 마침내 탄핵 위기까지 몰리는 지경에達했습니다. 이런 지도력의 위기가 바로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시대는 영웅이 없고 스타만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1위가 노래하

는 가수 뒤에서 춤을 추는 백댄서였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스타들이 바로 백댄서 출신입니다. 영웅이 없는 이 시대에 스타로서 대리만족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한 사람의 영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며 돈이 많은 재벌도 아닙니다. 학문이 뛰어난 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여덟 형제 중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를 가리켜 “작은거인”이라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다윗이 작은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 다.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 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합니다. 스타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스타를 따라다니고 자신도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순간의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 한 순간에 그 인기가 사라지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사람이 영웅입

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것이 꼭 옳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 받아서는 스타는 될지 몰라도 영웅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되어져야만 합니다. 적당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총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교만했으니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골리앗은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다윗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때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거인이 될 수 있었던 첫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정 주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수는 대패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주어진 직분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현대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남 지리산 아래에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명문으로 아주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1위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학생의 10%정도가 서울대에 진학을 합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명문으로 만든 것은 정명찬 교장선생님때문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학교를 세워 20년간 일을 했는데 최초로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돈 봉투를 사절했습니다. 참고서 값 할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학교의 강당 뒷 편에 가면 “직업선택의 심계”라는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으려는 곳은 절대 가지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 하는 곳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있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의 군대가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미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거인들이 되어 춘천도성을 성시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천성서목회기도모임 설교)

교계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정기총회

- 동부연회감독(강원도) 원주제일교회 김명기목사 피선 -

인천 송의 교회에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3회 총회가 열렸으며 이날 전국 교회에서 총대 3,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년 임기의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현 감독회장 김홍도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리고 총회에서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하였다. 지난 2년 동안 동부연회감독으로 재직하신 김창수 목사(춘천 신성감리교회)님은 감독의 무거운 짐을 벗고 교회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감독회장은 이유식목사 남부연회 감독(대전 둔산지방 성광교회 담임)이 선출되었으며, 연회별 감독으로 선출

된 분들은 서울연회감독에 박춘화 목사(서대문지방 창천교회 담임) 서울남연회 감독 안행래 목사(구로 지방 오류동교회 담임) 중부연회 감독 이종복 목사(인천 중앙지방 인천은혜 교회 담임) 경기도연회감독 박만용 목사(수원 동지방 동부교회 담임) 동부연회 감독 김명기 목사(원주 서지방 원주제일교회 담임) 충북연회 감독 김기웅 목사(충주동지방 남부교회 담임) 충청연회 감독 김용찬 목사(대전남지방 대전 중앙교회 담임) 상남연회감독 최타권 목사(마산 동지방 만민교회 담임)님이다.

그리고 제23회 총회에서 선출된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감독회장



○ 이유식 목사

- 대전둔산지방 성광교회 담임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졸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Rust College 명예신학박사
- 1963년 남부연회준회원허입
- 1971년 남부연회목사안수
- 1973 남부연회 정회원허입

동부연회감독



○ 김명기 목사

- 원주서지방 원주제일교회 담임
- 감리교신학대학졸업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Fuller 신학교 목회학 박사
- 1969년 중부연회 준회원 허입
- 1971년 경기연회 목사안수
- 1973년 경기연회 정회원 허입

춘천침례교회 연합성회 개최



▲ '98.11.23~26 춘천침례교회연합성회가 춘천침례교회당에서 열렸다. (감사 대전 침례교회 장경동목사)

시대가 어려울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백성을 치유하셨고 황무해진 삶의 자리를 풍요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합성회는 더욱 뜻깊은 성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의 때를 이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귀히 쓰시는 감사함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삶을 재건할 용기와 힘을 얻어 이땅에 새로운 Vision의 내일을 여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진 자는 일어서게 하소서
내려간 자는 올라오게 하소서
잃어버린 자는 다시 찾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얼어진 곳에 머무는 사람은 다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 알게 하시고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십자가 그 빛나는 길은
주님의 사랑아에 두손 모으는
민음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이 강물처럼
은혜가 햇살처럼
위로부터 내리고 흘러 우리의 가슴이 심기운
작은 믿음의 겨자씨 한알이
새들이 깃드는 성숙한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집사님, 구역장님, 학생회, 성가대
모두모두
은혜 빛 얼굴마다 넘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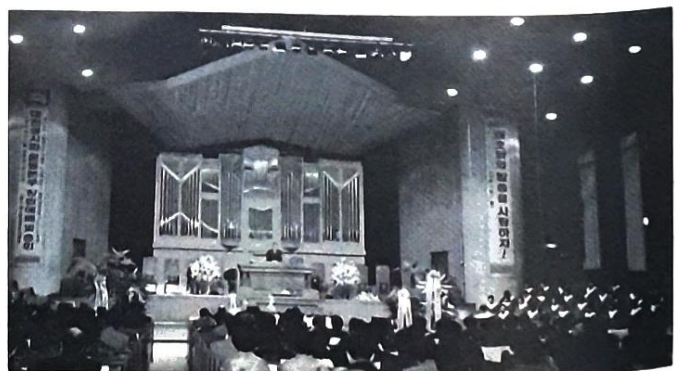
(대회장 허창 목사)



'98년 11월 30일 저녁부터 12월 3일까지(새벽5:00, 오전10:00 오후 7:30) 신성감리교회당에서 춘천동지방 연합부흥회가 열렸으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

다. 금번 부흥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동지방 선교부가 주최하였으며 강사는 서울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목사를 초빙하였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창립



'98년 11월 26일 오후 6시 대전중앙감리교회당에서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었다.

이날 대전 성시화를 소망하는 대전시의 목회자와 교계지도자들 그리고 춘천성시본부와 타시도에서 온 축하객들은 역사적인 성시본부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춘천에 이어 우리나라 중부의 거점

도시이며 보다 큰도시 대전을 성시화하기 위하여 성시본부를 창립하고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전의 성시화운동이 제2 제3의 도시로 번져 우리나라 주요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한다.

교계뉴스

행사

평화감리교회 한국 목사

· 서울장로회 신학교 분천 분교음악과 종강예배 및 연주회가 12월9일(수) 오후 7시 본교회당에서 있었으며 12월 10일 오후 7시 봄내 소리 연주회가 본교회당에서 열렸다.

· 감리교 목사 합창단 초청 연주회가 12월11일 오후 7시 본교회 당에서 열렸고 12월14일 본교회 지역장 기도회가 목사관에서 있었으며 12월20일 당회로 모일 계획이다.

· 성탄절을 맞아 12월23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성탄축하의 밤을 가질 계획이며 12월24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음악부 주관으로 성탄찬타 연주회가 있고 12월 25일 오후 11시 성탄절 대예배 및 세례식이 있다.

· 12월30일(수) 저녁 집회 후 구역회의가 본당에서 있으며, 12월31일 자정에 본당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

· 연합부흥성회-춘천동부지방 연합부흥성회가 11월30일부터 12월3일(오후 7:00 새벽 5:00 오전 10:30)까지 신성감리교회에서 열렸으며 본교회는 11월30일 성가대 찬양과 안내, 헌금위원을 담당하였고 12월1일 교역자 점심 접대를 담당하였다.

· 한국 목사님의 설교(토) 및 클래식(금) 해설이 아래와 같이 매주 계속되고 있다.

한국목사 방송안내

(춘천 CBS 93.7 MHz)
설교:매주 토요일
밤 9:35~10:00
클래식 해설: 매주 금요일
오전:10:35~11:00
교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chollian.net/~shalomph>
PC통신 소양넷 252-8185

석사감리교회 임택창 목사

· 교회 신문 16호를 발행하여 전 교인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교회 신문을 통하여 교회소식을 공유함은 물론 신앙향을 도모하고 있다.

군 복음화 찬양경연대회가 12월19일(토) 오후3:30 "빛으로 찬양단" 주최로 본교회당에서 열렸다.

· 성전건축을 위한 여성교회 철야기도회가 12월말까지 계속되며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제일 장로교회 박상호 목사

· 재할원 방문: 제6여전도회에서 재할원 위문을 위하여 11월 18일까지 헌옷(내복류)을 수집하였으며 대표회원들이 재할원을 직접방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다.

· 장로피택: 11월22일 공동의회에서 박동섭장로 이순훈장로를 제일장로교회의 협동장로로 피택하였으며, 전은풍, 심상우, 김향수 안수집사를 장로로 피택하였다. 이분들은 각각 소정 기간 경과 후 장로로 취임 또는 장로(안수)하게 된다.

· 권사 피택: 장정자, 손문전, 최춘자, 이복동, 신경자, 김정자 집사는 11월22일 권사로 피택되었으며 장로 장립식에서 취임하여 시무한다.

춘천성광장로교회 김광국 목사

· 제9회 흥태 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11월17일 18일 19일 추기 대심방을 실시하였다.

· 성탄을 앞두고 복한 동포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삼천봉 십자가 담 점등식에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 이상조집사(시온성가대지휘자)의 독창회가 12월3일 오후7:30 강원대학교 백령회관에 있었으며 그의 독창은 청중을 매료하였다.

강원도인복지회 이사장에 李英一장로

강원도인복지회는 지난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신임 이사장에 李英一(이영일·67)장로가 선출 되었으며 부이사장엔 金基泰(김기태) 李鍾燮(이종섭) 李昌龍(이창룡) 崔鍾仁(최종인)씨가 각각 선임됐다. (6면에 이어)

동정

· 권오서 목사(중앙감리교회)



는 12월9일부터 19일까지 본교회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자카르타 중앙교회 특별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귀국했다.

자카르타 중앙교회와 신학교는 본교회가 설립하였으며 계속 후원하고 있다.

· 임택창 목사(석사감리교회)



는 12월1일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회에서 있는 총회 회의록검사차 상경하였으며 12월 3일 4일 유성 온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목살장 임원회의에 다녀왔다.

· 김영원 목사(우두감리교회)



는 11월 23일(월) 감리교회 동부신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11월24일(화) 지방여성교회 제2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였으며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심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1월26일은 한국통신신우회가 주관하는 성서화기도모임과 직장성교연합회 초청 추수감사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 윤철중 목사(중앙성결교회)



는 지교회인 멕시코 로사리도 지역 아드미라블레 교회의 봉헌식에 남궁수명 장로와 함께 참석하여 은혜 중에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으며 성도들께 경과를 귀국보고를 하여 해외 선교의 열기를 더하게 하였다.

12월3일 오후 7시 선명회(world vision)3층 강당에서 열린 성서화기도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였으며 참석한 각급 기관장 지도자와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다.

· 차관식 목사(제일 감리교회)



는 11월23일 오전 11시 목원대학원 재

에서 열린 목원신학전문대학원의 축하식과 목원신학전문대학교 발전 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



는 99년 목회계획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도 금식기도원에 있는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 한 군 목사(평화감리교회)

는 11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인도 델리 및 북인도 지역에서 전도집회, 부흥집회 및 지도자 훈련(인도살름교회, 살름교회) 사역을 하시고 살름신학교 창립예배에 참석후 12월7일 귀국하였다.

·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는 11월20일 오후 5시에 있는 15사단 성탄 십자탑 점등식에 춘천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그리고 본교회의 여전도회 성가대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12월29일 오후 5시30분 어린이 회관에서 열리는 춘천성서화기도모임(기관장, 지도자들)의 송년예배에 참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계획이다.

· 이순훈 장로(world vision 구선명회,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는 12월 3일 오후 5:30 춘천시립 문화관 공연장에서 98년도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지급 대상자는 108명이며 한사람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 조남진 장로(춘천성시본부장)



는 11월26일 오후6시 대전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대전 성서화운동본부 창립예배에 춘천성시본부 대표들과 함께 참석하여 춘천에 이어 두 번째 창립된 것을 축하와 격려를 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향후3년간 강원도내 각분야 사회복지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



는 12월10일 오후 7:30 춘천세종호텔에서 열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춘천지회 창립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12월 10일 오전 11:00 경목 임원회에 참석하였다.

· 정상문 목사(동원감리교회)



는 12월7일부터 10일까지 대한기독교 감리회 춘천지회 연합집회를 인도하였다.

· 유태희 장로(장로연합회)



는 11월29일 오후7시 회원장로님들과 함께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며 이날 예배사회는 최종인 장로(순복음 춘천교회)대표기도 황병호장로(춘천제일교회)성경봉독 김동열장로(평화감리교회)가 담당하였고 정은경 선교사의 설교와 김주환목사(순복음 춘천교회)의 축도로 장로연합회의 헌신예배를 드렸다.

· 장기호 장로(춘천중앙감리교회)는 공식중매에 있는 춘천 YMCA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전임이사장의 잔여임기동안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장 이사는 저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분으로 YMCA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



는 춘천성서회 목요기도모임(기관장: 지도자들) 대표로서 기도모임의 활성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12월 29일 오후 6시 어린이 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 송년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 김기태 장로(중앙감리교회)



는 12월10일 오전11시 전국 감리교평신도협의회 기획위원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당일 오후6시에는 춘천기독교방송국 시청자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교계소식

순복음 춘천교회 김주환 목사

· 당회는 98명에 안수집사 15명 명
예권사 14명 권사 25명을 후보자로 선
정하였으며 다음 주일 투표를 거쳐 인
준할 계획이다.

· 만찬리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수
리하였으며 각 동 선교교회별로 매일기
도회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춘천제일감리교회 차관식 목사

· 학생부흥회 및 총회: 11월 28일부터
29일(1박2일)까지 신동교회당에서
중·고등부 학생 부흥회와 총회를 가
졌다.

·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11월 29일
오전 11시 전교인 연합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 98감리교 목회자 부임 가을 정기
세미나가 11월 23일 24일 홍천대명콘
도에서 있었다.

· 성가제 참여: 제4회 동부성가제가
11월 28일 오후 6시 원주제일교회당에
서 열렸으며 본 교회 성가대가 참여하
였다.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목사

· 특별저녁기도회: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교인 40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대 예배실에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속회편성 및 99년 교회 요람 제작
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1
월 16일 재활원 김장 봉사, 11월 18일

신명회 사랑의 도시락 봉사(여 18, 29
지회)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속
초에서 춘천서 지방 교역자 평신도 세
미나가 있었다.

신성감리교회 김창수 목사

· 부흥회: 춘천 동지방 선교부가 주
최하는 부흥회가 11월 30일까지 12월
3일부터 본 교회에서 열렸으며 서울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오전 10:30 새벽 5:00 오후
7:30) 은혜 충만한 부흥회를 가졌다.

· 성가제 참가: 동부연회 청장년선교
회가 주최하는 동부성가제가 11월 28
일(토) 원주제일교회에서 열렸으며 본
교회 성가대가 참여 찬양으로 하나님
께 영광 돌렸다.

우두감리교회 김영원 목사

· 성가제 참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동부연회 동부 성가제 연주회가 11월
28일(토) 오후 6시에 원주제일감리교
회에서 열렸으며 본 교회 백합 성가대
가 참석하였다.

· 신앙생활 5대 원칙을 전 교인들은
반드시 실천하기로 하였다.

「성도의 5대 신앙 원칙」은 주일 성
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한명 전도,
수입의 십일조와 감사 예물로서 성도
들의 신앙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춘천중앙성결교회 윤철중 목사

· 부흥성회: 당초 11월 22일 저녁부
터 예정이던 부흥성회가 12월 14일
(월) 저녁부터 17일(목) 저녁까지 성
대하게 열렸으며 참여한 성도들은 많

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 성탄축하: 각기관 별 성탄 찬양대
회가 12월 20일(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었으며, 기관들은 정성스럽게 준비
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소양성결교회 이원호 목사

· 예수사랑 선교회 봉사 활동: 전 교
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정신
지체아동, 자폐아동들을 대상으로 97
년 2월부터 매월 1회 이상 목욕봉사를
실행하고 있다. 이달 목욕봉사는 11월
26일(목) 오후 6시 연세목욕탕에서 실
시하였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신 지체 아동
들을 교회로 초청 주말학교를 열고 있
으며 매월 1, 2회 반찬을 만들어 제가
장애인들 가정에 전달하고 말씀을 전
하며 격려 위로한다.

동부장로교회 임신영 목사

· 장원노회 남 선교회 순회예배가
11월 29일 오후 7시 원주남강교회당에
서 있었다.

· 직장기독인 정오예배 12월 1일
(화) 12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었으며
예배후 교육관에서 여전도회의 봉사로
점심을 접대하였다.

·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를 위하여
전교인을 대상으로 쌀모으기를 실시하
였다.

· 12월 1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전
문인을 초청,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강의

하며 성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
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나이 먹으면 왜 눈에 이상이 오는
가?”

귀가 멀어 지는 이유와 대책은...

예수제자운동 국제 훈련원 개관

예수제자운동 (대표 윤태호 목사)는
모임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춘천
시 동면 만천리 555-1번지에 국제훈
련원 (IMTT)을 마련하고 12월 1일 오
후 7시 30분 개관 예배를 드렸다.

이 훈련원 건물은 전세계 지체들의
참여로 마련된 것이며 이제 세계복음
화와 만민 제자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
을 다할 것이다.

훈련에 관한 문의는 국제 선교훈련
원 (원장 김진호 박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361) 243-6701~4
FAX 243-6705

본사방문

- 김유식 목사(한신장로교회)방문
- 문정섭 목사(사우동장로교회)방문
- 허 창 목사(반석 침례교회)방문
- 김준언 목사(서로사랑교회)방문
- 김정하 장로(성광장로교회)방문
- 김기태 장로(중앙감리교회)방문
- 박무일 장로(석사감리교회)방문
- 허광웅 장로(서부감리교회)방문
- 황병찬 권사(동원감리교회)방문
- 최계천 안수집사(한국권투선교
프로덕션)방문

성탄트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김광국목사(성광장로교회)는 연합회 임원, 배계섭 춘천
시장, 기관단체장, 교계지도자들과 함께 평화의 왕 예수그리스도의 성탄을 알
리고 기념하는 '98 성탄트리를 12월 15일 오후 5시 중앙로타리 서울은행앞에
세우고 예배와 점등식을 가졌다.

동부연회춘천남부지방성가제



'98년 11월 29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원교회에서 열렸으며 석사,
동원, 평명, 성암, 효자, 신남, 사랑, 의암, 거두, 중부 10개교회 성가대가 참여
은혜로운 성가제를 가졌다.

직장선교운동

98 종교통계

세계 기독교인 19억6천5백99만3천명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6천5백99만3천명이 크리스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교학자 데이비드 바렛이 최근 내놓은 1998년 연례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 가운데 로마가톨릭 신자가 10억명으로 가장 많고 개신교인은 3억, 유색인종 토착기독교와 정교회 신자는 각각 2억명으로 나타났다.

이슬람교 신자는 11억7천9백32만6천명으로 두번째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힌두교 7억6천7백42만4천명, 불교 3억5천6백87만5천명, 부족 전래종교 2억4천4백16만4천명, 무신론자 1억4천6백40만6천명, 신흥종교 9천9백19만1천명, 시크교 2천2백87만4천명, 유대교 1천5백5만명 등의 순이었다. 무종교인은 7억6천6백67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급증세를 나타낸 종교는 부족 전래종교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백43.8%나 늘어났다.

시크교도도 13.5%나 늘어났으며 불교는 6.5%, 유대교는 6.1%, 이슬람교는 2.2%성장세를 보였다.

반면에 무신론자와 무종교인은 각각 34.8%와 13.4%나 줄어들었고 신흥종교(20.5%), 힌두교(4.8%), 기독교

(1.4%)등도 다소 교세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聖經輸出 4백여만 달러

IMF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서공회의 사업보고에 따르면 97년 11월부터 98년 4월까지 수출한 성서는 97년 같은 기간보다 35%, 50여만부가 늘어난 1백75만7천여부 4백여만달러어치로 집계됐다.

또 이같은 수출추세라면 98년 연말까지 97년보다 1백여만부정도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성경의 수출증가는 환율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히 남미지역 국가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대량 주문하고 있다.

이에비해 국내 성서는 외환위기 이후 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한 54만8천7백여부를 반포했으며, 환율상승으로 해외성서지원 예산규모가 1백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성서의 확장을 위해 짧은 성경구절이 담긴 특별전도지(10종)를 3백50% 늘린 4천1백58만장을 인쇄, 3천만장을 배포했다.

성시화 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전도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에 전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여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사명을 그리스도인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97년12월 현재로 조사하여 집계한바에 따르면 춘천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인구가 11만7천7백55명이 있습니다.

춘천시의 인구는 24만8백83명입니다. 이중 전체 종교인 수는 12만3천1백23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51%에 해당하고 나머지 49%인 11만7천7백15명이 종교를 갖지않은 인구로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대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춘천시 종교기관별 종교인수를 보면 개신교 2백91개소(신도수 4만6백44명), 천주교 성당 16개소(신자수 1만6천8백69명), 불교사찰 59개소(신도수 2만3천8백1명), 유교 1개소(신자 4만명), 기타 5개소(신자수 1천8백13명)입니다.

이들 종교 기관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로교 1백12, 감리교 80, 성결교 33, 침례교 24, 순복음교 14, 그리스

도협의회 4, 구세군 3, 안식교 2, 통일교2, 성공회 1, 전도관 1, 교회연합1, 말일성도교, 기타 7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사찰수가 59개로서 조계종 15, 법화종 8, 태고종 18, 진각종 1, 천태종 2, 법상종 1, 일승종 5, 관음종 2, 일련정종 1, 원효종 1, 금강종 1, 기타 4개 사찰이 있습니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춘천의 기독교인원 4만6백(291교회)여명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시민의 49%가 무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전도사역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신 우상에게 죽어가는 심령들... 성시화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방에서 들끓고 있다.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성시화를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다면 즉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교과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고 서로 경원시 하며 내가옳고 너는 그르다고 하는 사고는 기독교의 합의 능력이 자멸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아래 하나가 되어 결집된 역량으로 성시화에 최우선권을 두고 모여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으며 하나님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경중 성시신문편집고문)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성광교회

표어 : 산의 나무로 전을 건축하라(학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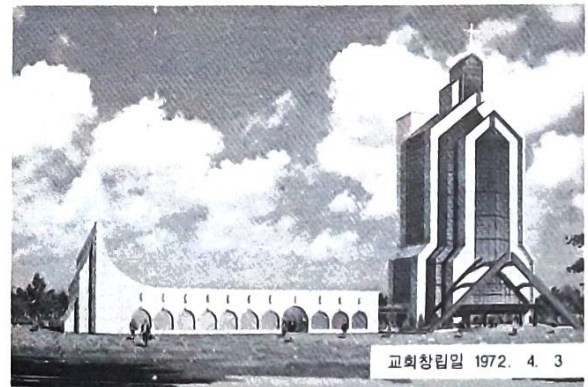
담임목사 : 김 광 국

교역자/부 목 사 : 노효경
전 도 사 : 조용아
이기태
교육전도사 : 박동주
협동전도사 : 김한호
한유민
장 로 / 원로장로: 한석기 김영희 김정하
은퇴장로: 한석용 강주원
시무장로: 한희현 안상만 조낙영 김기선 김희준 김종호
김현철 양인식 지희준 최복규 이용길 이준태 전근우
협동장로: 김 준

강원도 춘천시 운곡동 169-3

교회 : 252-4217, 257-4217 / FAX : 257-4217

교역자판 : 252-4218, 252-4219, 253-4876, 241-4219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회장 : 김 주 환 목사

1대교구장 : 김성수목사
2대교구장 : 전희정 목사
3대교구장 : 오희석 목사
장로 : 조남진 최종인 주승희 김용현 백원일
이지수 임윤식 양기홍 김진현 조은제

200-092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651

☎ 교회사무실 253-2741, 256-2741, 담회장실 253-2742 목사관 253-2743

• 1대교구 : 253-2841 • 2대교구 : 253-2842 • 3대교구 : 256-2741

사진으로 본 성시학운동사



97년 3월 19일 "국가위기 극복은 기도" 하고 간증하는 이범준 집사(한사랑교회)



97년 3월 20일 도내 4개대학 음악과 강연회(춘천문화예술회관)



도내 4개대학 총장님들과 학생들의 신앙표현 모습



97년 3월 26일 기관장 기도모임, 이범준 집사 간증(석사감리교회)



기독교기관장모임 석사감리교회 방문 예배



97년 4월 1일 제1회 기독교미술인회 전시회(춘천시립 문화관 화랑)



97년 4월 3일 재소자 복음화를 위한 세진회원들의 모임



97. 4. 3 신명회 회의실에서 기관장 기도모임 (이대식목사설교)

사진으로 본 성시화운동사



97.4.4~5 강원도청소년수련원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수련회하는 홀리클럽가족의 수련모습 97년 4월4일 홀리클럽가족들, 건강한 삶을 위한 수련회(강원청소년수련원)



97년 4월10일 기독교 기관장지도자 체육고등학교방문 예배



강원체고 고등학교 방문예배드리는 기관장지도자 기도모임(설교 김광국목사)



97년 4월23일 기독교기관장지도자 방문예배(춘천성결교회)



97년 4월25일 성시운동서적 발간위한 준비모임



97년 직장선교대회에서 웅기장이 선교단 찬양모습(설교 방신기 이랜드 사목)



크리스찬의 직업관이란 주제로 선교대회하는 직장기독교인들(동부장로교회)



97년 5월6일 법원회의실에서 애중회모임(김창수 목사 설교)

기독교 문학

詩

거기는 눈물도 인색한 땅

거기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던 땅은
눈물도 인색한 땅

단 한뼘의 공간도
아기 예수님을 위해선
준비된 것이 없었네

배반과 음모와 살육의 냄새가
소용돌이 치는
유대 땅 작은 마을에서
아기 예수님은
오늘
평화의 문을 여셨다

유난히 힘들고 괴로웠던 한 해
스치는 바람 한 점도 힘에 겨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건널수 없었다.

아기 예수님
거친 황야를 통과하느라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었을
무례와 횡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당신이 오시던 2천년전 거기는
눈물마저 인색한 땅이었지만
오늘
우리 맞는
이 아침은

이제는
눈물도 풍요로운 땅

사람이며 하느님이신 당신의 풍요와 사랑이 있기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동산이다.

이희수

수필가 이희수는 춘천에서 태어나 강원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일하였음. 지금은 강원고등학교에 재직. 「한국수필」, 「천로」, 수필집으로 「가슴으로 흐르는 江」('88), 「아나미의 戀歌」('92) 「달빛 흐르는 소리」('92)가 있으며, 역서로는 모니카 성녀의 전기 「아들이 내 치마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다」('92)가 있음. 제1회 수필문학상을 수상('93). 한국수필가협회·한국문인협회·국제펜클럽 한국본부·카톨릭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임.



청령포

윤혜숙

- '92 코리아포스트지 창간 기념전(미국)
- '92 한국 여류 4인전(샌프란시스코)
- '90~'98 선교국 무대미술 및 성탄장식
- '97~'98 춘천 기독교 미술인전
- '96~'98 홍익 여류 한국화전
- '97 홍익대학 동문전
- 아동국장 우습초 대표
- 소년원 종교위원 유지결 연극지도
- 교도소, 사랑교회와 자원봉사 감의



축성탄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동부교회**



담임목사
임신영

교역자 부목사: 강종로 **장로** 은희: 김재호
송정섭 시무: 김홍규 김정희 권오창
이석진 박상만 김이훈 조규학
김태권 이준희 이유수
전도사: 김치수 이구용 장병섭 신현택
이미혜 이영훈 김남철 박희범
선교사: 이영하 강동구 윤병현 황복남
홍순용 임길석

200-070 춘천시 조양동 137-8 ☎(0361)252-5958, 5959
목사관 262-4349, 부교역자 257-4748, 243-0191, 255-8987
사할관 252-5955, FAX 241-1999

말씀대로 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제일교회**



담임목사
박상호

시무장로: 이창용 김용호 황병호 맹영웅 한남수 마칠규 김주극 박두빈
박동섭(협동) 이순훈(협동)
협력선교사: 최근욱(몽골) 이훈찬(필리핀) 김영구(독일) 박상배(인도네시아)
노시영(브라질) 남진선(중동)

200-100 춘천시 낙원동 46-7 : Nokwondong, Chuncheon Kangwon, Korea
☎교회 241-4361~5 담회침실 241-4365 FAX 241-4364
목사관 241-0168 부목사 255-0167 전화실교 214-4365

Merry X-mas

「크리스마스 풍습은 로마 농신제에서 유래」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다. 시카고 대학 라틴 고전학수업교수였던 고든 레이(Gordon Leing)박사는 크리스마스 축제의 방종과 환락의 분위기, 촛불예배, 선물교환, 크리스마스 추리 등의 풍습은 월신(月神) 숀베로 특징 지워지는 로마의 농신제(Saturnalia)를 그대로 본 딴 것이라고 했다.

교회사가(敎會史家) 필립 샤프드 증언하기를 농신제가 끝나는 동지 다음날인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을 12월 25일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변형시켜 상징적으로 기념하려 했다고 하였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는 밀라노 칙령이후 기독교와 이교를 단일종교 체제로 통합하기 위해 태양신 숀베일인 일요일(Sun-day) 예배를 공포하였고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게 하였다.

그후 A.D 533년경 로마의 수도원장 디오니시우스는 자신이 작성한 부활절 만년 표에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산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전세계에 전래 되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렉산더 「히슬롭」은 자신의 저서(고전) 「두개의 바빌론」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상세히 다루었다. 12월 25일은

바빌론 종교에서 하늘의 여왕 아들 담무스의 처음 성탄절이 지켜진 것이 A.D. 354년이나 335년이라는 논쟁이 거듭되었는데 동서방 교회들이 이날을 로마통치 영역에 일반화시켰고 그후부터 성탄절은 교회력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는 주요 절기가 되었다.

성탄절은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4세기 전에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주현절을 예수의 생일로 기념했었다.

사도들 이후세대와 2세기 때에도 어느 한 날을 구별하여 성탄절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215년경 죽은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Clement)가 예수탄생일이 5월 20일이 아닌가 추측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으나 역사적인 증거로는 탄생일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켰다는 사실이 4세기말까지 없었다는 거시다.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경배와 찬양의 기회로 삼는 것은 좋은 전통이며 신앙에 유익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들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맞는 모습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연극이나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며 이웃 불신 가족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사랑을 베풀며 성탄헌금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세인들은 들떠서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떠들썩하게 그들의 축제로 만들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예수를 증거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할 때 비로소 성탄절은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할 때 비로소 성탄절은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예배와 음악

교회음악의 이해



교회음악은 음악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교회가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그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음악적 서울신학교 추천분교장 인 환경에서 큰 교회들은 좀더 폭 넓게, 새교회들은 좁은 범위의 교회음악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점은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너무도 좁은 시야로 교회음악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가치있게 다루어져야 할 교회음악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 글에서는 세가진 관점 즉, 음악자체로서의 교회음악, 음악과 관계된 환경적 요소, 그리고 음악의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에서 독자들이 교회음악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1. 음악자체로서의 교회음악

요즘 교회음악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음악으로 부터 최신의 세속적인 랩에 이르기까지 각종 음악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교회음악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신학교 교회음악과에서도 학생들에게 두 팀으로 나누어 이 문제에 관해 논쟁을 하해보면 끝이 나질 않는다. 또한 결론이 명쾌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교회음악의 역사를 보면 교회음악으로서 논쟁의 대상이 되던 음악들이 후일에는 교회내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또다른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순복음교회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복음성가가 지금은 어느덧 흘러간 옛노래가 되었고 새로 나오는 강하고 빠른 리듬의 곡들이 우리 교회속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음악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음악의 다양한 형식, 거기에 맞는 내용, 적절한 악기의 사용, 또한 이것들을 교회가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가. 음악의 다양한 형식

음악의 역사를 보면 음악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 어휘에 따라 높낮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가지 표현도 이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 감사, 간구, 확신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자체만으로는 교회음악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음악적 배경에 따른 어떤 이들은 고전적인 음악 이외의 음악은 교회음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고전적인 음악은 싫고 현대적인 리듬의 감각적인 교회음악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하면 나라마다 교회음악의 양상도 다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추며 부르는 영가(spiritual song)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어디에 교회음악의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인가?

다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음악은 역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바흐(J. S. Bach)가 만약 1세기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의 작품들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그가 20세기 이후에 태어났다면 하더라도 바흐적인 곡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음악은 계속 계승되어지고 그 전통적인 기반위에 비로소 새로운 형식이 창작되는 것이다. 바흐의 곡이 가장 교회음악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일년동안 매주 바흐의 곡들만 찬양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교회음악의 종류는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신학교 교회음악과 신(편)입생 모집안내

최고 권위의 음악목사, 교회음악 전문지도자(음악전도사, 음악선교사역종사자,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독주자 및 성가대원) 양성 전문교육기관이며,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에 입각한 학문성을 수립하여 바른 교육을 통해 몸된 교회에서 바르게 실천 봉사할 유능한 지도자 교육을 목표로 1968년 설립되었다.

모집학과(주.아)

■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수능시험 관계없음)

학 과	구 분	학제	응시자격	비 고
교회음악과	주간·00명	4년제	고등학교 졸업자	지휘자·반주자·솔리스트·관련악 봉사자 양성
피아노·오르간	아간·00명	2년제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 추천분교는 야간학부만 있음
성악·작곡				
지휘·편곡				

진행

- 1) 원서접수기간 : 1998년 12월 ~ 1999년 2월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신앙상담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반명함판사진 4매

원시교부처

본교 교무처 및 음악과 사무실
추천분교 ☎255-8808, 241-7118(교회음악원도 부설로 운영함)

특징

- 졸업 후 본교에서 취득한 전 학점을 인정받아 외국자매 정규대학인 영국-에버턴, 웨일즈, 글라스 고우, 리버풀 호프 대학/미국-U.B.S.S. Tindel./캐나다-노스웨스트, 리드머 대학 등에 편입학 할 수 있음
- 교회음악 지도자 자격증(전공별) 수여됨
- 소정교육 이수 후 사회교육지도자 2급 전문자격 취득, 사회교실(음악)운영자
- 성적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 장래가 촉망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등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근로 장학금, 특별 장학금, 장려 장학금 등이 지급됨.

시민광장 · 시민과 함께

건강상식

콩단백질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콩단백질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콩단백질이 콜레스테롤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내의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안전한 수준인 남성과 이를 초과한 수준에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다이어트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연구는 20세에서 50세이하의 남성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들중 절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였다. 연구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쪽은 콩을 먹게 하고, 다른 한쪽은 고기를 먹게 하여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10~15주가 경과한 후, 두 집단이 서로 콩과 고기를 바꾸어 섭취하도록 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전수준을 넘는 연구대상자에게 있어서, 동맥에 해로운 저밀도 지방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는 콩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이 13%가 떨어졌고, 고기를 섭취한 집단은 8% 저하에 그쳤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전한 집단은 콩을 섭취한

사람은 11% 저하되었고 고기를 섭취한 사람은 5%가 저하되었다.

두 집단 모두 연령과 체중에 관계없이 콩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이 콜레스테롤 저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미국 농무부 농업조사국

밤이나 땅콩 먹으면 여성의 심장병 발생률이 감소한다.

견과류를 먹으면 여성의 심장병 발생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새 연구결과가 나왔다. 8만5천여명의 영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14년간의 연구에서 견과류를 먹으면 심장 발작과 관상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버드대 영양학부의 연구팀은 1주일에 5번 이상 견과류를 1온스(약 28g)씩 먹은 여성이 관상심장병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불과 14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견과류를 먹지 않은 여성의 경우 197명이 사망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사실은 심장발작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는 혈액지질에 좋은 효과가 있어 심장에 좋다고 말한다. 또 많은 견과류가 신체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견과류는 영양성분이 서로 비슷하며 따라서 땅콩도 심장병에 좋다고 한다.

자료출처:영국 BBC방송

사과와 메밀은 -혈압억제와 치매예방 효과

사과에는 100종류가 넘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암세포 발생을 촉진시키는 활성효소를 억제하는 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녹황색 채소에도 함유되어 있으나 사과와 함유량은 어떤 채소에도 뒤지지 않아 항산화작용 외에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이 가운데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과폴리페놀의 항알레르기 작용인데, 한 기업체에서는 이미 덜 익은 사과의 즙을 이용해 폴리페놀을 정제, 상품화하는 단계에 와 있다. 메밀에도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판명되었는데, 이 성분은 특히 뇌에 노화를 방지하는 작용과 기억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노인의 치매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출처:일본농업신문

(조선하 기자)

요리코너

이렇게 만드세요.

★ 이탈리아 치킨 ★

[재료]

닭(1kg): 1마리 셀러리: 1/2줄기 피망: 1개 양파(작은것): 1개

그린올리브: 5개 토마토케첩: 1/2컵 육수: 1컵 버터: 3큰술 소금, 후추, 향신료(oregano), 와인: 적당량

[만드는 법]

1. 닭은 큼직하게 토막을 내어 소금, 후추를 친 다음 프라이팬에 앞뒤로 구워서 색깔을 낸다.
2. 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파와 셀러리를 곱게 다져서 충분히 볶고, 피망을 다져 놓는다.
3. 양파, 셀러리를 볶은 다음 토마토케첩을 넣고 다시 볶다가 육수를 붓고 닭과 함께 불을 약하게 한 후 향신료를 넣고 서서히 조리한다.
4.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 불에서 꺼내기 직전에 와인 1큰술 정도 넣는다.

★바나나 초콜릿구이-230kcal★

*재료(4인분)

바나나 4개 초콜릿 - 50g

[만드는 법]

1. 바나나 벗기기
바나나는 껍질을 한쪽만 벗기고 끝을 떼지 말고 돌돌말아 꼬치로 고정시킨다.
2. 초콜릿엮기
간 바나나 위에 초콜릿 다진 것을 간격을 두고 나란히 엮는다.
3. 호일로 싸 굽기
2의 바나나를 호일로 싸서 달구어진 팬이나 오븐에 15분정도 굽는다.

★ 샤브샤브 ★

재료: 쇠고기 안심부위 기름적은것(샤브샤브용으로 썰어달라고 함)

무, 멸치(다시마)미나리, 버섯(노타리, 표고, 팽이 등 원하는 것 다양하게 준비. 한가지만 해도 됨), 좋아하는 야채, 국수와 밥, 달걀 그외에 두부, 곤약, 김치만두 등 다양한 재료가능 상추와 양념

[만드는 법]

1. 무, 멸치와 쇠고기 약간으로 국물을 내고 소금약간, 간을 안한듯이 한다.
2. 양념은 간장에 마늘, 식초(레몬즙은 더 좋음)와 국물낸 것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 둔다.
3. 휴대용 가스렌지를 넣고 하나씩 들어가며 먹으면된다. 이때 고기라 약간 느끼할 수 있으므로 상추쌈에 싸서 먹으면 개운하다
4. 고기를 다 먹으면 국수를 넣고 이때 양파와 파조금, 소금으로 간합니다.
5. 국수를 먹으면 거기에 밥을 넣고 참기름 조금하고 달걀을 하나 깨서 넣고 국자로 계속 저어 준다. 다 되면 죽도 먹는다.

※ 샤브샤브 소스는 대략 간장소스와 땅콩소스 두가지.

1. 간장소스: 국물 5큰술, 진간장 5큰술, 식초 3큰술, 무 간것(무가 매우면 조금, 달고 맛있으면 많이), 미림 조금, 레몬즙(또는 사과나 배 주스), 설탕 조금
2. 땅콩소스: 국물을 넣고 설탕과 미림을 더하여 간을 봐 가면서 비율을 맞춘다.
대개 고기와 숙갓이나 갓갓같이 향이 강한 야채는 간장 소스에, 향이 약한 야채(배추나 양배추)나 두부, 곤약 등은 땅콩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조선하 기자)

자원재생 폐품이용 만들기

● 미니화분

재료/ 요플레통 3개, 골판지, 본드, 리본, 테이프, 스푼

만들기

1. 골판지를 그냥 사용하기에는 두꺼우므로 밑부분은 베어낸다.
2. 요플레통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준다
3. 요플레통 주변에 본드를 발라 골판지를 붙인다
4. 바닥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 눌러가며 붙인다
5. 얇은 리본 테이프에 풀을 발라 고정하고 리본을 묶어 장식한다.

● 장갑인형

재료/ 구멍난 목장갑, 부직포, 솜, 실, 바늘

만들기

1. 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자른다음 뒤집어 시접을 0.5cm 남기고 바느질 한다
2. 장갑을 다시 뒤집은 후 솜을 채워 넣는다
3. 부직포를 둥글게 오리 구멍위에 올려놓고 바느질해 준다
4. 부직포로 눈, 코, 입 모양을 만들어 본드로 붙이면 인형이 완성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유효기간이 지나 종이 팩이 팽창하게 부풀어 오른 우유는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습니다. 변질된 우유를 청소용으로 사용해 보세요. 구두나 마루 닦을 때는 약소 대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식물의 잎을 닦을 때 사용하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구두를 닦을 때는 먼저 구두의 먼지를 털어 내고 변질된 우유를 형질에 묻혀 칠해둔 다음 마른 후에 닦으면 윤이 납니다. 마루나 옷장도 같은 방법으로 닦으면 됩니다.

시민광장 · 시민과 함께

“...Let us build together”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Habitat for Humanity Korea)

1976년 설립된 이래 전세계 60개국에서 7만여 채의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 국제적인 민간 기득과 자원봉사단체인 본 연합회(이사장 정근모)는 1995년 건설교통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8년 말 현재 13채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10여 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의정부, 태백, 진주, 청주, 음성 동두천 등에 약 400채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 있다.

연합회는 설립 초기부터 필리핀 헤비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건축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97년말까지 55채를 건설하였다. 특히 97년부터 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 사업으로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혜가정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 경제적인 명백한 필요가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 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용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주택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사람.

-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건축비용을 무이자,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노동에 동참해야 한다. 자신의 집이나 타인의 집을 위해서 500시간 이상 노동으로 동참해야 함.

헤비타트추천설립을 위해 일해주시시오.

1998년 헤비타트추천이 설립되어 춘천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혜가정 선발과 교육, 그리고 지부 운영에 직접 관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되고 싶으신 분도 환영합니다.

☎ 연락처: 0361-244-1837,
241-9432, 019-215-7191

최 용 호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이사장
정 근 모

Tel: 02-261-3702,
FAX: 02-271-3704

http://www.habitat.or.kr

추천도서

“프레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이 글을 쓰는 저자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돕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길 원하시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응답 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없이 '들어놓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해 진정으로 더 잘 알기를 바라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솔직해야 하는 것은 그 분이 모든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나는 프레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알게 되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의문들에 하나님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것을 약속하셨다.
그 보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총체적인 삶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고도 넓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다. 프레어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맥락에서 지도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김정주 성서본부간사)

(저자 : W. B. E. D. H. / 현 달빛 신학교 학장 / 규장문화사 / 가격 8,500)

성시신문 기사 보내주세요

원고종류

교회관련소식(목회자동정, 교회행사, 국내외선교, 각종뉴스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 강의, 간증, 추천도서 및 독후감, 시 그림, 만화, 만평, 사진, 생활상식 등

광 고

춘천시민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보내주실곳

원고접수기간 : 매월10일까지(월간신문)

주 소 : (우 :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춘천성시신문 제작부

☎(0361)256-1260~1

F A X : (0361)257-1260 PCS : 016-246-2752

PC통신ID : KIBIBLE2 (하이텔)

E-mail : KIBIBLE2@hitel.net

성시신문은 아주 작은 소식도 감사히 받습니다.

※구독

성시신문 정기구독(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본신문은 3,000부를 발행하며 무료입니다.

夫婦 十誠命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제1계명: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상대방을 고친다는 것, 특히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인간인 내가 고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2계명:동시에 화내지 마라.

성경은 분노와 화내는 것에 대하여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려거든 처음 5분을 참으십시오. 절대로 두사람이 한꺼번에 화 내지 않도록 결심 하십시오.

제3계명:칭찬을 자주하라.

칭찬과 격려는 행복한 가정의 보약입니다. 칭찬은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남편에게는 긍지를 줍니다.

제4계명:밝은 자화상을 가지라.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밝은 자화상이 있어야 합니다. 밝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키워 주려고 노력합니다. 즉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5계명: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종이 울릴때까지 종이 아니고 믿음을 행할때까지 믿음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 할 때 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말과 혀와 행함과 진실 함으로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제6계명:시간을 함께하라.

부부는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잔소리나 불평이나 바가지가 아니라 생명 언어를 말하고 들어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부부가 나누는 대화의 축복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세워 주고, 나누고, 점축하면 최상급의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제7계명:거짓말을 하지 말라.

한물된 부부는 서로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를 의미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는 것이 있을 지라도 부부 사이에는 부부 관계를 위협할 만한 일이 아닌 이상에야 숨기는 것이 없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제8계명:합리적으로 계획하라.

결혼생활에도 목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장 단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9계명:성 생활에 성공한다.

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 증족 보전이고, 둘째 사랑의 표현이고, 셋째는 인생의 환희와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10계명:주파수가 맞는 신앙을 가지라 (신앙으로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되는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김성욱 민수집사, 성시신문위원)



성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기독교연합회 임원 ●

회 장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서 기 조영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부 회 장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	박인관 목사(광명감리교회)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회 계 이영일 장로(석사감리교회)
유태희 장로(제일감리교회)	박상만 장로(동부장로교회)
총 무 한 균 목사(평화감리교회)	감 사 정상국 목사(샘밭침례교회)
협동총무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	한주석 장로(광장감리교회)
최종인 장로(순복음제일교회)	

● 장로연합회임원 ●

고 문 한석용(성광장로교회)	총 무 한주석(광장감리교회)
고 문 이학규(석사감리교회)	회원부장 김홍규(동부장로교회)
직전회장 이창용(제일장로)	선교부장 심인섭(신성감리교회)
회 장 유태희(제일감리교회)	재무부장 이무식(석사감리교회)
부 회 장 허종구(중앙성결교회)	서 기 길용진(제일감리교회)
부 회 장 김정하(성광장로교회)	감 사 이성용(소양성결교회)
부 회 장 최종인(순복음춘천교회)	감 사 김기선(성광장로교회)
부 회 장 박승택(서부감리교회)	감 사 김동열(평화감리교회)
부 회 장 황병호(제일장로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춘천중앙교회

새 역사를 열어가는 교회(사54:2)



담임목사 : 권 오 서

교구목사(서·북)	김선진	원로목사	곽철영
교구목사(동·남)	한주희	소속목사	신오섭
행정기획목사	김신섭	원로장로	이복희 이기원 한석희
교육목사	김승희		심재환 김종순 안 민
(인도네시아)	이희문		이경매 왕정길 신성주
교육전도사	정용범		민병재 함영자
	김희산	사무장로	김기태 이승오 임봉수
파송선교사	여성호		곽부근 정세연 장기호
(인도네시아)	조시철		이영식 정진완 권순길
	문은진		김찬수 김창기 김교익
후원선교사(독일)	윤종만		송중철 조한진 신경희
			이명해 조명길 이은희

200-010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73번지
☎ (0361) 교회 255-3561~2

성경의 권능받아 전도하는

기독교 대한성결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 윤 철 중

장 로
허종구 남궁수영 김태인 김경수 최신
규 이태집 차형렬 엄창희 현제학 박순
신 박한병 박주병 김치경 이갑제 남성
연 김죽선 이관섭 김재영 김진삼 남성
우 배계섭 서문용 정지수 엄창현춘천시 죽림동 86-7 ☎ 교회사무실 : 256-3537, 8 Fax : 256-3543
당회장실 : 256-3535, 목사관 : 256-3536, 부목사관 : 256-3539, 256-3540

기독교 동원교회

East Paradise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 정 상 문

행정목사	최종수	교회사무실	256-8877
교육목사	이민주	상담실	256-8878
심방전도사	유순자	담임목사실	256-7001
원로장로	이순자 한세동	최종수목사	243-6117, 019-369-3691
장 로	정병호 한석동 이춘호	이원주목사	241-1408, 019-369-3692
	윤준오 김택준 위태식	유순자전도사	265-1240, 019-369-3694
	송병진 이기택 허근영	버스기사	252-8802, 019-369-3695
	이동택 김경남		

200-092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49-20
149-20 HYQJA2-DONG, CHUNCHON-CITY, KANGWON-DO

기독교 춘천석사교회

CHUNCHEON SEOGSA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 임 택 창

여호와께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대·상 28:10)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0
☎ 사무실 : 261-6823 목사관 : 262-6803
FAX : 261-6824 목사실 : 261-7088 부목사관 : 262-7088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춘천도성을 복음의 도시로 성시화하려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믿음의 사람이 한데 모여 시간을 정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모임이다.

95년 10월부터 오늘까지 3년 이상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목요일 저녁 정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일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에 드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은 오직 춘천도성의 성시화에 목표를 두고 사사로운 일은 제쳐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이 기도모임의 성시화 전략은 오직 기도이며 진실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 하심을 통하여 춘천도성 위 미신 우상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성시화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기도모임에 동참하는 무리들은 기관, 단체장, 교계지도자, 직장기독인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다.

당초 기관장 기도모임이란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수차 개칭하였으며 이제 춘천성시화기도모임으로 확정하였다.

이 기도 모임을 돕고 지도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차례로 설교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3주간은 성시화기도모임으로 세계주는 비전 126 기도모임으로 모이며 직장 또는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성시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국내외 외교, 교회의 부흥, 기독교 방송 신문, 직장인들의 기독교인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11월 달 춘천성시화 기도모임을 위

치고 춘천도성의 성시화를 위하여 목요기도모임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춘천성시화 기도 모임

1주-성시화 기도모임

일시 : 11월 5일 (목)
장소 : 월드비전 (구 선명회)
사회 : 정승기 집사
성경 : 눅 6:45~49 믿음의 기초 교육
말씀 : 허창목사 (반석침례교회)
참석인원 : 22명

2주-성시화 기도모임

일시 : 11월 12일 (목)
장소 : 월드비전 (구 선명회)
사회 : 박무일 장로
성경 : 삼상 17:41~49 작은 거인
말씀 : 김지한 목사 (신복장로교회)

3주-성시화 기도모임

참석인원 : 20명
일시 : 11월 19일 (수)
장소 : 평화감리교회
사회 : 신종철 집사
성경 : 삼상 7:3~11 응답 받는 기도
말씀 : 한 군 목사 (평화감리교회)

4주-직장신우회 방문 예배

참석인원 : 250명
일시 : 11월 26일
장소 : 한국통신 춘천전국회
사회 : 홍관호 집사
성경 : 시 138:1~8 감사생활
말씀 : 김영원 목사 (우두감리교회)
참석인원 : 65명



98년 11월 12일 world vision (신명회) 3층 강당에서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차한잔 들며 담소하고 있다.

매월 회보 발행으로 활력 찾는 직장선교회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40여 개 직장이 회원단체로 연합하여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매월 1회 선교회보를 발행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각 직장마다 교유의 업무가 있고 공

사가 다양한 실정인데 상임전담자가 없는 환경에서 매월 선교회보를 발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사역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신앙향상과 직장 복음화를 통한 성시화를 위하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틈틈이 자료를 모아 집필하고 편집하는 회보일꾼들에게 아

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와 같이 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회보를 접하는 회원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평가절하 하지 않고 어느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또 음미하며 믿음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다.

바라기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선교회보일에 동참하여 직장교회성도들을

살찌우고 부흥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춘천의 모든 직장을 복음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각 직장에서는 신우회 소식은 물론 회원들의 소식 그리고 모든 분야의 소식과 지식을 나눌로 독점 사장하지 말고 회보지에 실어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시회원 11월 후원현황

성시회원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지극하신 정성으로 성시화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9월부터 후원금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 드리려고 하오니 해당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256-1260~1)

개인 후원자

- 월 1,000원 : 왕순옥, 김현철, 안미정, 이병연, 안정숙.
- 월 2,000원 : 성기운, 박승희, 고선희, 신영숙, 박기희, 허순영, 정유양, 한희현, 김창호.
- 월 3,000원 : 홍순복, 최경용, 이봉자, 임은경, 이준택, 정순녀, 권순이, 김영달, 이영순.
- 월 5,000원 : 이홍순, 황병찬, 장찬복, 홍성운, 박동환, 오홍수, 정용현, 김종용, 최일정, 김숙자, 허광웅 (1년 60,000)
- 월 10,000원 : 신성균, 천우석, 한석용, 조광수, 윤진국, 이문자, 김봉우, 장기영, 명위식 (30,000), 김석범, 김남철, 임승하, 김기태 (20,000), 맹영웅, 서의승, 박재복, 임희호, 최구식.
- 월 20,000원 : 김태종, 김철수, 양인평, 김명영, 이환영.
- 월 30,000원 : 조남진, 유근창, 박숙영.
- 월 100,000원 : 조은제, 이용규.

단체 후원자

- 월 20,000원 : 춘천택시 (주), 직장선교연합회.
- 월 50,000원 : 열린교회, 알로에 마임.
- 월 500,000원 : 중앙성결교회.
- 월 1,076,000원 : 순복음 춘천교회.

기타 후원자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성광전기 김철호 집사) -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대한인쇄기획 지영철 사장) -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안디옥 기독교서적 센터 홍광우 장로) -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중앙감리교회) 500,000원 - (500,000원 추후 송금)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강촌 갈보리 기도원 이평해 원장) -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석정갈비) : 300,000원 -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종가, 강원대학 태백관 식당 대표 정을섭 권사) -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선교회 : (어린이 회관 디너레스토랑) - 송금중에 있음.

* 송금중에 있는 개인 및 단체

- 1,000원 : 김광순, 김성옥, 서원탄, 지금복, 한영숙, 임이남, 이화자, 박희숙.
- 2,000원 : 김은자, 김성금, 박은주, 이운식, 정명순, 이승철.
- 3,000원 : 백기만, 이경용, 이미경, 조성에, 신영자, 이종택, 이재현, 이경자, 홍신일.
- 5,000원 : 고영희, 강원영, 김영순, 윤영순, 장효덕, 장수영, 신만승, 황용학, 황희중, 한대희, 임성택.
- 10,000원 : 강주원, 김종혁, 김진삼, 김은양, 김복희, 김원호, 김영선, 남궁진, 박영희, 박무일, 이경숙, 안동규, 이상표, 유태희, 이해영, 윤건배, 조자영, 서승달, 한재화, 이학규, 임창호.
- 12,000원 : 민혜원.
- 20,000원 : 조정일, 심혁화, 최인혁, 정대복.
- 30,000원 : 유수열, 박경애, 박봉영, 조석봉, 정동준.
- 100,000원 : 최치광.
- 단체 : 30,000원 : 일신장로교회.

스포츠 선교

프로복싱 선교의 꿈



최계천

한국권투선교프로모션
(순복음 춘천교회 안수집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라 하셨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Sport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복음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복음전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믿을 때 어떠한 기회라도 복음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 강원도 홍천에 프로 복싱 스포츠를 통하여 세계적인 복음 선교를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는 7년 전부터 국내의 복싱계를 뛰어 다니면서 선교를 위한 프로 복싱 유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

93년 미국의 헤비급 복서이며 전도자인 조지 포먼의 한국 유치로 세계적인 선교를 위하여 전세금을 담보로 1천

5백만원을 마련하는 등 자기 생활보다는 복음전도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금년 8월 27일 수해로 고통 당하는 성남시민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하여 홍천 출신 복서 최승록의 프로데뷔 2차전과 함께 기도성대회를 열었다. 이 날 최승록 선수가 1회전 KO로 이겼으며 모아진 성금은 성남시에 기탁하였다.

그리고 기도 중에 북한어린이 돕기 젓염소보내기와 WBC 슈퍼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홍천에서 열 것을 응답 받았으나 가진 돈은 8천원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못하겠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사 41:9-10)에 용기를 얻었으며 지금까지 권투 선교를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선수인 태국의 WBC세계 플라이급 6위(전 동양 플라이급 챔피언) "축차이 축이왓트"에게 보낼 항공료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준비를 위하여 서울에 갈 교통비도 없는 형편이었다.

태국 선수를 초청하려는 것은 홍천선수 최승록의 세계진출로 복싱선교의 지경을 넓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후배 김현호를 통하여 항공료를 마련해 주셨으며 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 김준근 목사,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홍천교회연합회 목사님들 이춘섭 군수 채육인, 실업인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다.

12월 4일 오후 6시 홍천 온천에서 만찬과 기도회를 가졌으며 12월 5일 오후 2시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꿈에도 그리던 복싱 선교대성회를 열어 수많은 불신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서치호목사(홍천중앙감리교회)의 사회로 정용진 목사(홍천교회연합회장)인사와 김광섭 목사(희망장로교회)의 설교 양명환 목사(만일감리교회) 조석철목사(연봉장로교회) 주택형목사(희락교회) 대표기도 등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었다.

사람의 계획을 현실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복싱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재삼 깨달았다.

강직 축이왓트와 싸운 최승록은 1회 2분 33초만에 KO승을 거둬 세계랭킹

10위내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제 프로복싱을 통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최승록은 내년에 세계랭커들과 2차례 경기를 치러 승리할 경우 세계 타이틀전에 도전하게 된다.

복싱선교의 사명에 뜨거운 최계천 안수집사(순복음 춘천교회)는 한국 권투선교프로모션을 운영하면서 자나깨나 복싱을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믿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꿈은 국내외 경기장이 복음전파의 장이 되고 프로권투를 통하여 평양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안선혁
(권투선교후원회장)

홍천강 무궁화 싹

洪川農協協同組合
TEL: (0361) 434-3380~2

홍천농협 연합 미곡처리장
TEL: (0361) 434-8391
FAX: (0361) 434-8392



직장교회 추수감사예배

한국통신 춘천전화국은 복받은 직장이다. 사옥5층 회의실을 직장교회로 사용하여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듣고 감사하는 예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년 월 일 이곳에 부임한 국장은 직장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적극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전 직원 신앙화에도 힘쓰고 있어 신우회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한다.

11월 26일 오후 6시 국장의 직접 진두지휘에 용기백배한 홍관호집사(신우회장)와 회원들은 금년 한해 직장을 보호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법위를 넓혀 춘천지역 많은 직장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추수감사 예배를 마쳤다.

이 날 직장 예배당에는 "춘천 성시화 기도모임과 직장선교 연합회 초청 98추수감사예배"라는 현수막이 게첨되었고 많은 기관 단체장 교제지도자 각 직장신우회 그리고 원주등 직장회원들이 동참하여 성대한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국통신신우회는 1986년 45월10일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춘천지역 모든 직장 신우회의 선구자역을 담당하고 있다. 초대회장 허광웅 장로(서부감리교회)와 김태식 장로(동부장로교회), 임원 및 모든 회원들은 열심으로 협력하여 모범적인 직장신우회를 운영하고 있다.

(허광웅 장로 성시신문위원)

